

낯설다 不慣れだ ⇔ 낯익다 顔なじみである
살이 찌다 太る ⇔ 빼빼 여위다 がりがりに痩せる
배웅나오다 見送りに来る ⇔ 마중 나가다 迎えに行く

뿔뿔이 흩어지다 散り散りバラバラになる 뿔뿔 흘리다 たらたら流す
뿔뿔 거리다 忙しくせかせかする 뿔뿔이 들어서다 ぎっしりと建ち並ぶ

갸우뚱갸우뚱 首を傾げる動作

깜짝 놀리다 わっと驚く 꾹꾹 얼다 かちかちに凍る 쑥쑥 자라다 すくすく伸びる
슬슬 사작할까요? 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か?

비가 그치다 雨が止む 긋을 날씨じめじめした天気 해가 뜨다 陽が昇る
햇볕 쬐다 陽差しに当たる

구미에 맞다 口に合う 꼭 다물었다 (口を)固く閉じた
참이 가득 찼다 唾で一杯になった 고무장갑을 껴다 ゴム手袋をはめた
꼼짝도 못하세요 手も足も出ません 획 돌아서다 ぷいっと背を向ける
머리 좀 고치게요 髪をちょっと直しますから
손가락질을 당하다 後ろ指をさされる 등골이 오싹해진다 背筋が寒くなる
안경 낀 사람 眼鏡をかけた人 눈총을 받다 睨まれる
몸을 다루다 体を大事にする 배멀미를 하다 船酔いする
귀를 기울여 보다 耳を傾けてみる 손이 트다 手が荒れる
몸살이 좀 나다 疲れが少し出た 몸에 배어 있다 身に付いている

신경 끊고 気にしないで (濃音化) 주목해야 할 것 注目すべきこと
날을 받다 結婚の日取りが決まる 맛이 구수하다 香ばしい
혼이 나다 叱られる 정신 차리다 しゃんとする 뜻을 꺾지 않다 意志を曲げない
이만저만이 아니다 並大抵でない
휘말려 들어갔다 巻き込まれていった 기가 죽은 모양 落ち込んでいる様子
흉을 보다 欠点をあげつらう 버릇이 없다 行儀が悪い
전화를 받다 電話に出る 잘난 척하다 格好を付ける 낡아 빠진 古びた

안부 전해 주세요 よろしくお伝え下さい
돈을 내리다 金を払う 보증을 서다 保証人になる 장 보다 買い物をする
적금을 붓다 預金する
간장이 떨어지다 醤油が切れる(なくなる) 밧데리가 나가다 バッテリーが切れる
불을 꺼다 明かりを消す
책을 펴십니다 本を開いてください

살짝 데쳐서 무치다 さっと湯がいて和える

글이 살리다 文が載った 줄이 얽히다 糸が絡まる
정성 들여 가꾸다 精誠こめて育てる
건넌 말했다 何とか我慢した
깜짝같이 속았다 すっかり騙された 일을 꾸민 ことを企む
속을 셈치고 騙されたと思って 특장을 살리다 特長を生かす
절반이 넘는 半分以上의 기울 가능성 偏る可能性
매달릴 때 掛かりきりになること

갈고 닦아 研磨し磨いて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르리는가 하면 火で焼いて鎚で叩くかと思えば

삿대질을 받다 非難を浴びる 고집 부리다 強情を張る 떼질을 쓰다 だだをこねる
안팎급사등이 가 된 꼴이다 八方塞がりの様だ
환경에 어울리다 環境に馴染む 사람에게 속에 휩쓸리다 人の中に溶け込む
엮진 데 덮치기로 伏せたところに覆い被さるように(泣き面に蜂)

새 움이 돋아난다 新芽が出る 크고 작은 나무 大小(様々の)の木
구별이 뚜렷합니다 区別がはっきりしている

안 변화셨대 お変わりになってなかったようよ
~을 앓다 ~に罹る(病氣)
엮신여기고 방자함 (他人を)見下し放埒である

어디서 났어? どこで手に入れたの
하루 ある日 그믐 晦日 보름 十五日 한 보름 半月
실달 師走 그제 おととい 상여지불날 ボーナス日
제때 ちょうど良いとき 맨 끝 一番奥、端
한 걸레 一足 열 발짝쯤 十歩ほど 두 갑 ふた箱

무게 重さ 먹 墨 숯 炭

건넌목 踏切 현관 玄関 네거리 交差点 개찰구 改札口
등기 우편 書留郵便 그림엽서 絵葉書

다친 데 傷口 상처 傷 흠 傷
눈치 気配 연장 道具 함바 飯場
삼 シャベル 몽둥 스톱퍼 잡도리 段取り

계주 リレー(繼走) 이어달리기 リレー
거미줄 蜘蛛の巣 철봉 쇠몽치 鉄棒 막대기 棒

해장국 血のスープ 등심 牛肉のひれ 창난젓 ニシンの塩辛
진수성찬 御馳走 며느리 嫁 사모 妻 사모님 奥様
옷웃 上着 옷자락 裾 천 옷감 生地 치마폭 チマの幅
찌꺼기 残りかす、食べかす 행주 布巾 설거지 片づけ
걸레 雑巾 주걱 しゃもじ 수저 箸と匙 기성복 既製服
형광등 蛍光灯 불빛 明かり 싸구려 安物 헐값 安価
장례식 葬式 빚 借金
소용돌이 渦 옳고 그름 善し悪し 깃발 旗
월등 (越等)飛び抜けて 단청 寺院などの模様
설자리 居場所

내려갈까 해요 行こうかと思えます(自分が)

먼저 가 있을까? 先に行ってるかな、先に行つてようかな
먼저 가 있을게 俺、先に行ってるよ
먼저 가 있냐? 誰か先に行ってるかな
먼저 가 있을래? おまえ、先に行ってるか
난 안 먹을래 僕は食べないよ

펼리하기만 할까? 果たして便利なだけかな
펼리하기는 해 便利なことは便利だよ
펼리하거든 便利なんだよ

난들 어찌 알겠어요? 私になどどうして分かりましょうか
나더러 이찌라는 말씀이세요? 私にどうしろとおっしゃるのですか
그 일은 너라서 가능했던 거야
その仕事はおまえだったから可能だったん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おまえなら出来るだろうよ

나라니까 僕だってば 날 말이야 ぼくはさあ
내가 뭘? 僕がなんだって?

~지을 수밖에 없다 ~지 않을 수 없다 ~지 않으면 안 된다
~せざるを得ない

~모과 동시에 ~기가 무섭게 ~자마자 ~는 동시에
~되면서 ~と同時に

~을 수 있을 것 같이 않네요 ~지 못할 것 같은데요
못 ~겠군요 ~을 수 없는가 보죠 ~できそうにないですね

이제나저제나 ~을까 싶어서 ~ではないかと今か今かと

뚫어지게 쳐다보며 穴の開くほど見つめながら
깨뚫어 보면 見極めれば

그만둘까 봐 やめようと思って 그마뉘 봐 やめてみて
그만두는가 봐 やめるらしい、やめるようだ

목이 빠지게 首を長くして 목이 타서 喉が渴いて
목이 터지게 喉が裂けるほど

벌써 시작된 줄로만 알았는데
もう始まっているとばかり思っていたのに
비가 오는데 / 오시게 해서 일부러
雨の中、雨の降る中、わざわざ
눈을 꼭 감고 가만히 계세요 目を閉じてじっとしててください
그 사람이 그만둘 줄 몰랐어요
その人が辞め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黒い雲が空一杯に広がった
도서관에서★ 책★ 읽고들 있더라
図書館でみんな本を読んでいたよ ★にも들を入れられる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石橋も叩いて渡れ

나라니까 僕だってば 날 말이야 ぼくはさあ
내가 뭘? 僕がなんだって?

가렵더라도 긁지 말고 꼭 참으세요
痒くても搔かずにじっと我慢しなさい
참견했다가는 욕만 먹겠어 口を出したら怒られるだけだ
힘들게 지고있을게 있니? 大変な思いをしてまで背負っていることはないじゃないか
제발 이번만은 좀 너그러이 봐 주세요
どうか今回だけは見逃してください
너도 갈래? 나는 가만 있지, 뭐
おまえも行く? 僕は行かないでここにいるよ
식으면 맛 없단 말야 冷めたら不味くなるんだってば
검을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쏟아졌다
黒い雲が湧いたかと思うと夕立が降り注いだ
신 신고 발바닥 긁기 탁하다 隔靴搔痒
기쁠 수밖에 없잖아? 嬉しくないわけがないでしょ
크림을 잘 발라라 クリームをちゃんと塗りなよ

너무 늦었네, 그만 가야겠다 随分遅くなったね、もう帰らなきゃ
조금만 더 쉬었다 가요 もう少しゆっくりして(休んで)行ってください
그럴까? そう? そうしようかな

이제 보니 今になって考えると
해 보지도 않고 겁만 내다니
しても見ないで怖がるなんて
애길 안 할 테야? 話をしないつもりか
골치가 아파요 頭が痛いです(困っている)
그러시겠군요 そうで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ね
먼길을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遠路はるばるお疲れさまでした
비가 개더니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비꼈다
雨が上がると東の空に虹がかかった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다 何をお求めか、と尋ねた
오히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을 텐데
むしろ私があらかじめお話し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ですが
그게 끝나야 갈 수 있겠는데
それが終われば行けるんですが
네 집에 들르겠어 おまえの家に寄るよ

도저히 그 애를 따를 수가 없다
到底あの子と肩を並べることができな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泥縄
분초를 아껴 가며 공부해야 입시에 합격하죠
寸暇を惜しんで勉強してこそ入試に合格します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どうしてこんなに遅いんですか?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나요? 遅れたくて遅れたんじゃないよ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다 (썰다) 皮を剥いて薄く切る

안 그래도 ~ 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네
ちょうど(そうでなくても)~しようとしていた(するつもりだった)から、ちょうどよかった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겠다고 나서지 마
まともに出来もしない癖に、でしゃばるな

있을 수 있겠는가? / 있을까? ありうるだろうか? ~できようか(反語)

~가 ~자고 해서 ~に~しようと言われて
~가 보니까 ~してみたら

~기로 하다 ~하는ことにする ~러 가다 ~しに行く
~기로 ~하는ことに ~으라고 ~しなさい(という)
~어라 ~しなさい ~으랴 ~дарoughか(反語) ~을래 ~だよ

~에도 불구하고 ~にもかかわらず ~을 막록하고 ~にかかわらず
부득이하다 やむを得ない

~어 주었어야 하는 건데 ~し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に
깜빡 했네 うっかりしてたよ

비록 ~없으나 決して~ないが
비록 ~더라도 たとえ~になっても 아무리 ~ 더라도 いくら~でも
아무리 ~해도 どんなに~しても、いくら~しても
~을지언정 ~になろうとも
~든지 ~든지 꼭 ~야 하네 ~しようが~するまいが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 된 걸요 ~になったんですもの。

~인들 ~すら ~치고 ~であれば必ず ~더러 ~に
~면서부터 ~し始めてから
~기는 ~だなんて、まだだいじょうぶだよ、そんなことないよ

~이 있나봐? ~があったようね
~은다더니 ~するようすが
~는다고 했더니 ~と言うと
 좋더라고요 よかったですよ

~듯이 ~と同じように、~のとおり ~는 듯まるで~のように
~지 ~であって(後ろには否定文が来る)
매일 ~ 다시봐 毎日~かのように
~면 ~게 마련이다 ~야 ~는 법이다 ~すれば~するものだ
~야 되거든요 ~なければならぬんですよ
~이래야 ~といたって、~といっても ~이야 ~こそは、~だけは
~여야지 ~しなくては、~するべきだ ~야말로 ~こそ、~のほうこそ

~었는데도 ~길래 ~しても~だから
~ㄴ/는 김에 ~のついでに

~이니까 /~이라서 그런지 ~だからなのか
치란 것은 없지만 大したものはないですが ~이 못지 않게 ~に劣らず

~따라 없네요 ~に限ってないのね

~고 있다 ~なりつつある ~고는 싫어도 ~したいのは山々だけど
~고 있는 마당에 ~しているところへもってきて ~거니와 ~である上に

~라지만 ~だが ~나마 (せめて)~でも
딱하기만 하다 気の毒なばかりである
~기 십상이지 않아요? ~ばかりではないですか
~만해도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つい~まで、ここには何もなかった
오르지 ~뿐이었다 唯一~だけだった

~기에 ~というので(他の人が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
~은다니 ~だと聞いたので ~면서 ~という理由で、~といって

그나마 ~다 보니 それさえも~してしまって
그저 그만하다 まあまあのところだ、せいぜいこんなものだ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よりによって ~기는커녕 ~どころか
~이나 ~も(驚き) ~까지~다니 ~まで~だなんて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よりによって

~지 않았더라도 ~을 뻔했는데 ~しなかったら~になるところだったよ
그럴 뻔했지 そうするところだった
하마터면~을 뻔했다 すんでのところ~で~するところだった
~을게 뻔하죠 ~に決まってるよ
단 ~쓰을 텐데요 わずか~だったのに、残念でしたね
~을 텐데요 ~のはずでしょう
차라리 ~을 걸 그랬다 どうせなら~すればよかった
~지 그랬어 ~すればよかったのに、(どうしてしなかったの)
~을 줄 알았으면 ~었을 거야 ~と知ってたら~しただろう

어떻게 ~은지 ~을 수가 있어야죠 どのくらい~なのか、~はずがありませんよ
얼마나 ~ 다구요 どれくらい~なことか、とても~なんですよ
여간 ~이 아니었나 봐요 なかなか~だったようですね

척척 해치운대요 てきぱきやってのけるそうですよ
~정도는 아니래 ~ほどではないようだ

~을 체 ~するふり 그럴 듯하나 もっともらしいが

~다 된 걸요 ~になったんですもの。
아무리 ~ 더라도 いくら~でも 좋더라고요 よかったですよ

~더니 ~と思ったら、(第三者に対して)

~였더니 ~したところ、(話者自身について)

~다가 갈까 해요 ~してから行こうと思います

~쓰다 ~쓰다 했다 ~したり~したりした

~하느라고 ~しようと(自分の意志) ~하기 위해서 ~するために

~에 의해 ,관한 ,대해 (人に対して用いる)~のために、~のせいで

약간 서투르지다それほど良くない

나한테 私のところ X~의 곳에

~구나 ~だねえ ~지? ~かな?

어떻게 ~느냐죠 어떻게~을 것인가죠 どのよう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よ